

2026년 새해를 여는 작은 감각의 시작 김리아갤러리, 단체전 'Small Paintings – My Bijou!' 개최

- 2024년 '보석', 2025년 '원석'의 흐름을 잇는 세 번째 프로젝트
- 20명의 작가가 선보이는 50여 점의 '작지만 밀도 높은' 작품들
- 실험적 시도와 자유로운 감각에 주목한 새로운 흐름 제안



'Small Paintings – My Bijou!' 전시 알림 포스터

김리아갤러리는 오는 2026년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새해를 여는 첫 전시로 단체전 <Small Paintings – My Bijou!>를 개최한다. 2024년 '보석의 섬세함', 2025년 '원석이 지닌 단단한 에너지'를 주제로 이어 온 소형 작업 프로젝트는 올해 세 번째 에디션을 맞으며, 보다 실험적이고 자유로운 감각을 담은 작품들로 새로운 방향을 펼쳐 보인다.

올해 전시에는 총 20명의 작가가 참여해, 5호 내외의 작은 화면 속에서 각자의 개성과 시각적 태도를 담아낸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회화·조각·오브제를 넘나드는 이번 소형 작업들은 크기와 상관없이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가까이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드러나는 재료의 결, 화면과 표면을 이루는 리듬, 작가의 손길이 남긴 세밀한 흔적들은 작은 스케일이 주는 가장 큰 매력으로, 관람객에게 더욱 밀도 높은 감상 경험을 제공한다.

작가에게 작은 화면은 단순히 축소된 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한 선택과 창작의 집중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내고 핵심만을 남기는 과정에서 새로운 구성 방식이 등장하거나, 평소 시도하지 않던 색감과 질감에 대한 탐구가 나타난다. 올해의 <Small Paintings – My Bijou!>가 강조하는 '실험성과 자유로운 감각' 역시 이러한 창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된 결과다.

관람객에게 소형 작업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는 사적이고 깊은 경험을 제공한다. 작품과의 물리적 거리가 좁혀지면서 자연스레 시선은 세밀한 부분에 머물게 되고, 작은 화면 속에 압축된 이야기와 감정의 층위를 찾아보는 즐거움 역시 커진다. 이처럼 작은 작품은 공간을 압도하는 대신, 관람객의 시선을 천천히 끌어당기며 고유한 대화의 순간을 만든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Small Paintings – My Bijou!>는 지난 두 해 동안 쌓아온 프로젝트의 결을 이어가면서도, 작가들의 각기 다른 접근을 바탕으로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는 자리다. 60여 점의 작품이 만들어내는 다층적인 장면 속에서, 관람객은 자신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빛나는 한 점의 '작은 보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보도자료 | 2026. 1.

K I M R E E A A

주최: 김리아갤러리

위치: 김리아갤러리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75길 5 (청담동 100-31)

KIMREEAA GALLERY | Gangnam-gu Apgujeong-ro 75gil 5, Seoul, Korea

INSTAGRAM: www.instagram.com/kimreeaagallery

WEB: www.kimreea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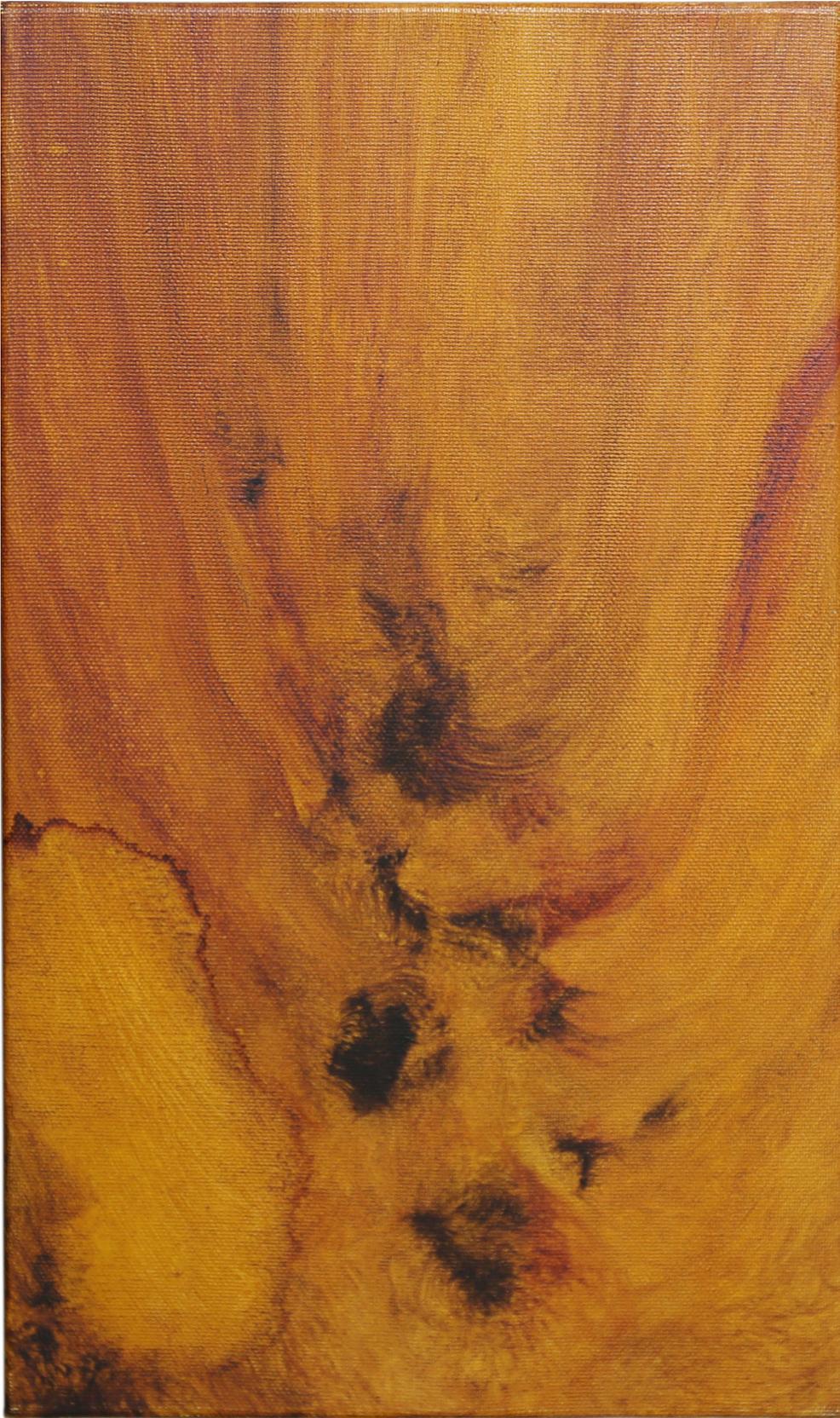
구태승은 회화를 통해 이미지와 표면, 지각 사이의 불안정한 관계를 탐구한다. 반복적인 그리기와 지우기의 과정을 통해 재현과 물질성이 맞닿는 지점을 드러내며, 회화의 표면을 완결된 이미지가 아닌 의미와 형식이 끊임없이 조정되는 공간으로 다룬다. 그의 작업은 외양과 실재 사이의 어긋남과 우연, 제스처가 만들어내는 층위를 통해 허구와 실재가 교차하는 시각적 상태를 제안한다.

Ku Taeseung explores the unstable relationship between image, surface, and perception through painting. Through repeated processes of drawing and erasing, he reveals points where representation and materiality intersect, treating the painted surface not as a finished image but as a site where meaning and form are continuously adjusted. His work proposes a visual condition in which fiction and reality intersect, shaped by slippage between appearance and substance, chance, and gestural layers.



Ku Taeseung
Middle Eye(I)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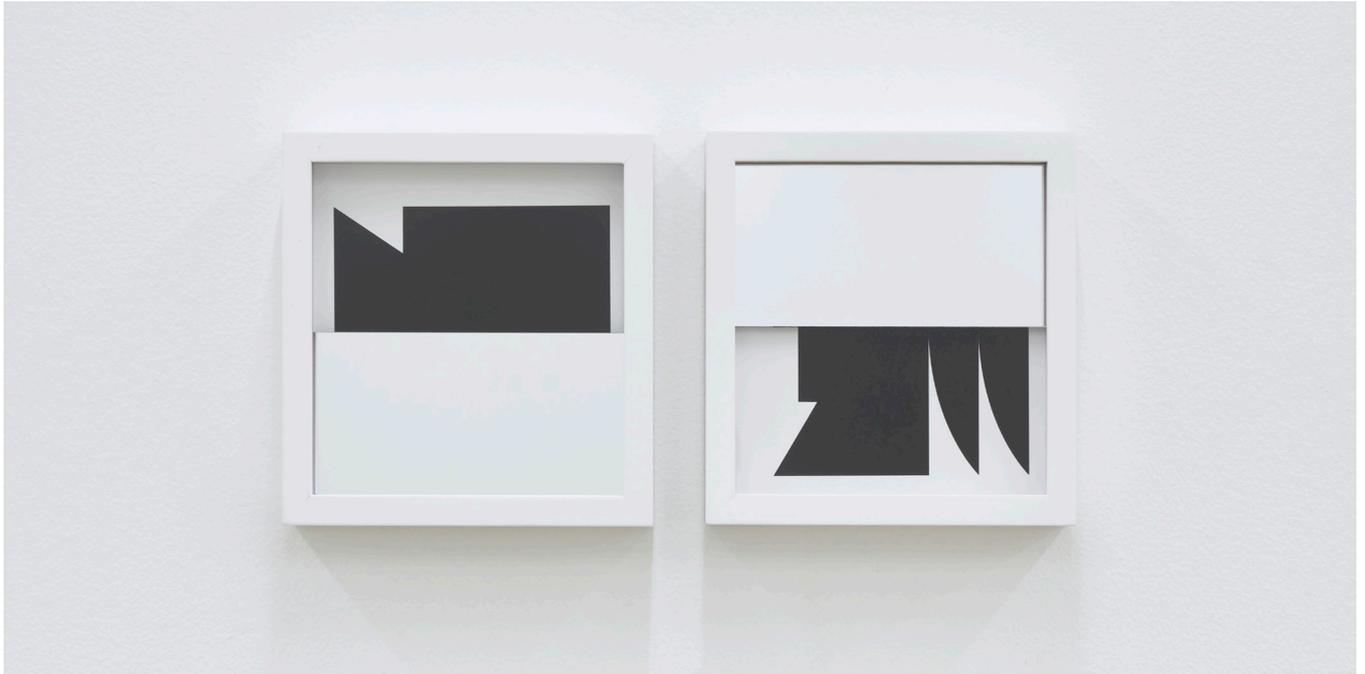
oil on canvas
33.4×19cm



Ku Taeseung
I'm This, I'm That(Wet) (2025)

oil on canvas
33.4×19cm





권아람은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 형성되는 '보여짐의 방식'과 그 구조를 탐구한다. 디지털 네트워크가 개인의 인식과 주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화면을 통해 전달되는 이미지가 실체로부터 분리·변형되는 과정을 작업의 주요한 문제의식으로 삼아왔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Freeze Frame 연작은 스크린과 거울의 구조를 평면과 입체로 재구성하며, 변화하던 디지털 이미지의 시간성을 하나의 '정지된 회화적 표면'으로 고정한다.

Kwon Ahram investigates modes of visibility and their structures as shaped by digital screens. Taking a critical view of how digital networks influence individual perception and subjectivity, her practice centers on the processes through which images transmitted via screens become detached from and transformed away from their original referents. The Freeze Frame series presented in this exhibition reconstructs the structures of screens and mirrors across two- and three-dimensional forms, fixing the temporality of shifting digital images into a single, suspended painterly surface.









오다교는 자연이 품은 에너지와 생명의 기원을 흙이라는 원초적인 재료를 통해 풀어낸다. 평범한 원형 화분 속 흙에서 생명의 우주를 발견한 경험은, 작가로 하여금 흙의 물성과 촉각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탐구를 바탕으로, 작가는 땅이 지닌 방대한 에너지와 심층적인 상징성을 마대 위에 입체적인 흙덩어리로 담아낸다. 구체적인 형상을 고집하기보다는, 물성에 깃든 에너지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창작의 방식은 자연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Oh Dakyo explores the energy of nature and the origins of life through soil, a primal material. An experience of discovering a vast universe of life within the soil of an ordinary round flowerpot led the artist to actively engage with the material qualities and tactile presence of earth. Building on this exploration, Oh shapes dense masses of soil onto burlap, giving form to the land's expansive energy and deep symbolic resonance. Rather than insisting on fixed or recognizable forms, the artist responds sensitively to the energy embedded within the material itself, allowing the process to align closely with the natural flow of 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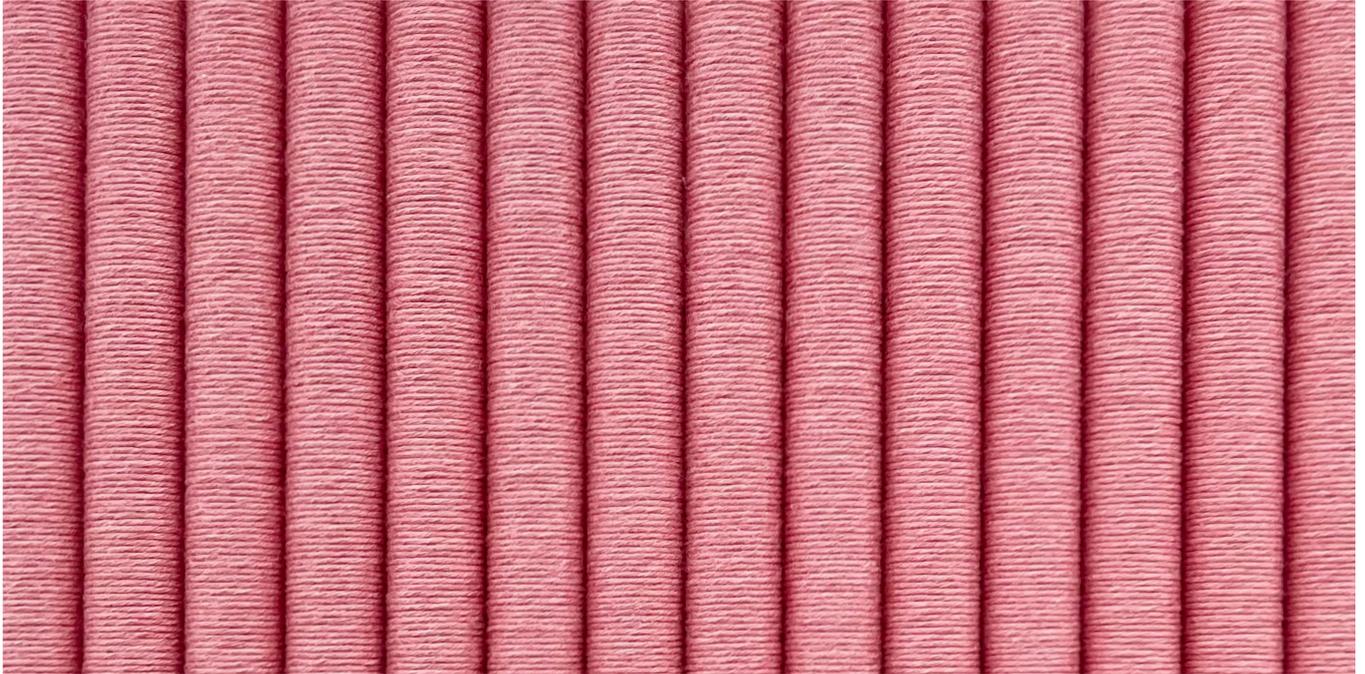
오유경은 연결과 축적, 반복의 과정을 통해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상태를 다양한 매체로 시각화한다. 결합과 중첩은 그의 작업에서 관계와 시스템을 환기하는 핵심적인 조형 언어로 작동한다. 그는 실버를 주요 매개로 삼아 물성과 비물질성, 에너지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며 작업의 스펙트럼을 확장해왔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크리스찬 디올 컬렉션, 에르메스재단 등에 소장되어 있다.

Oh You Kyeong visualizes states of change within relationships through processes of connection, accumulation, and repetition across various media. Combination and layering function as key formal languages that evoke relational systems in her practice. Working primarily with silver, she explores interactions between materiality, immateriality, and energy, expanding the scope of her artistic inquiry. Her works are held in the collections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the Christian Dior Collection, and the Fondation d'Hermès.



Oh You Kyeong
Pagoda of Baram (2025)

wood, crystal, metal, and thread
32.5×15×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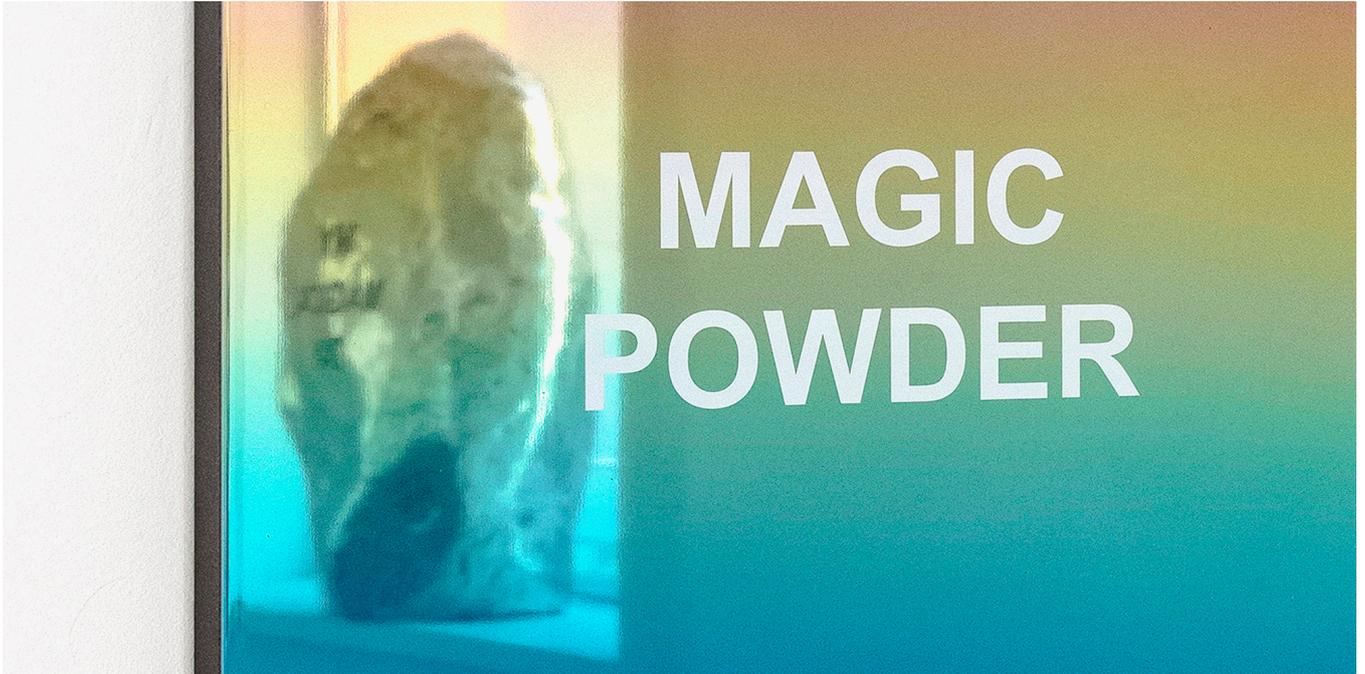
윤정희는 실과 금속 파이프를 결합해 섬유 재료의 물성과 촉각적·공간적 가능성을 탐구한다. 유연한 실과 단단한 금속이 이루는 선적인 구조를 통해 반복과 배열, 곡선과 직선, 여백과 긴장이 만들어내는 감각의 리듬을 공간 속에서 구현한다. 그의 작품은 경기도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상징적 서사보다는 재료 자체의 감각적 작용에 집중하며, 관람자가 몸으로 경험하는 공간적 상황으로 확장된다.

Yoon Junghee explores the material and tactile-spatial possibilities of fiber by combining thread with metal pipes. Through linear structures formed by the contrast between flexible thread and rigid metal, Yoon creates sensory rhythms in space shaped by repetition and arrangement, curves and straight lines, as well as intervals of openness and tension. Her works are held in the collections of institutions including th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d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Government Art Bank). Focusing less on symbolic narrative than on the sensory action of materials themselves, her practice extends into spatial situations experienced physically by the viewer.









이원우는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특유의 유티와 해학으로 비틀어, 일상의 체계에 균열을 가하고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환기해왔다. 그의 작업에서 자주 인용되는 거인이 되어 불안감을 떨쳐 버린다는 가정, 네잎클로버·별·무지개와 같은 행운의 아이콘, 가볍게 대화하듯 툭 던져진 문구, 형태와 의미가 왜곡된 오브제 등은 자기방어적 농담이자 판에 박힌 외부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생명력으로 작동한다. 그는 서울시립미술관, 아트선재센터,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베이징 송주양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미술기관에서 전시를 개최했으며 그의 작품은 Uli Sigg 컬렉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Ace Hotel 등에 소장되어 있다.

Lee Wonwoo twists elements drawn from lived experience with a distinctive sense of wit and humor, disrupting everyday systems and reactivating the familiar. Recurring motifs in his work—including the imagined act of becoming a giant to dispel anxiety, icons of luck such as four-leaf clovers, stars, and rainbows, casually spoken phrases, and objects with distorted forms and meanings—function both as self-protective jokes and as vital gestures that unsettle a formulaic external world. He has presented exhibitions at major institutions worldwide, including the Seoul Museum of Art, Art Sonje Center, Amorepacific Museum of Art, and the Songzhuang Art Museum in Beijing. His works are held in collections such as the Uli Sigg Collection,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the Seoul Museum of Art, and Ace Hotel.





Lee Wonwoo
Heavy light_2023_036 (2023)

stone, paint, stainless
31.5×25×2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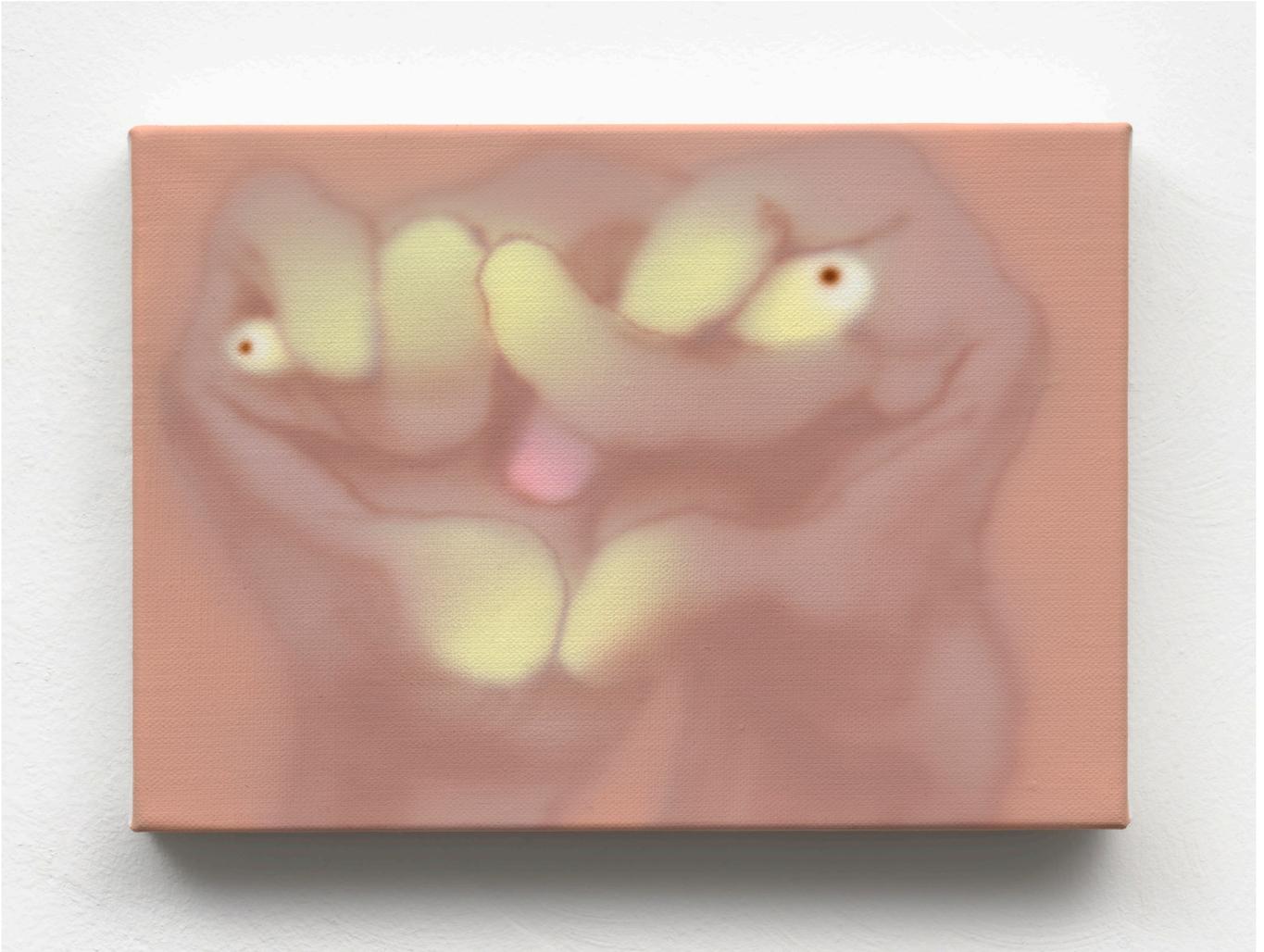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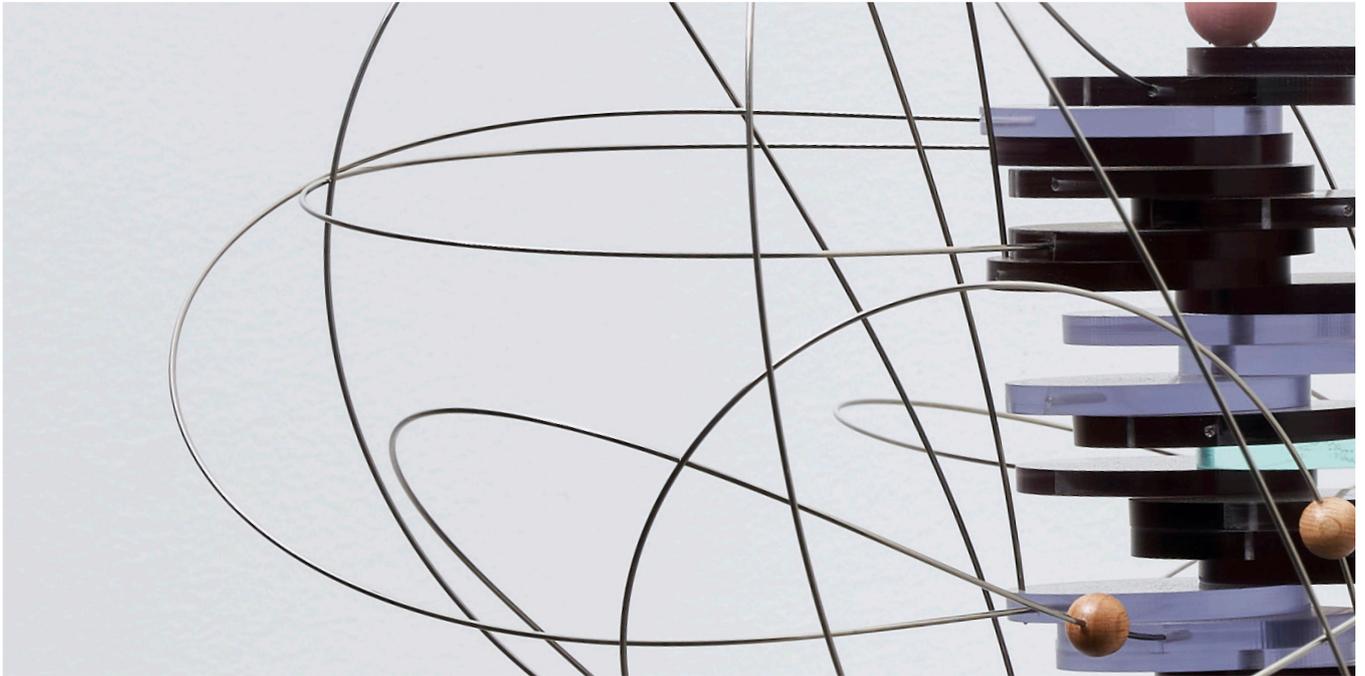
장예빈은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유통되는 영상의 순간을 스크린샷으로 포착해 회화로 옮기며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찰나나 눈을 질끈 감는 순간처럼 통제에서 벗어난 신체의 예기치 않은 움직임에 주목한다. 이러한 장면을 정지시켜 신체가 만들어내는 불완전한 동작과 예측 불가능한 흐름을 화면에 머물게 함으로써, 그는 시간이 멈춘 순간 속에 잠재된 움직임의 가능성을 끌어낸다.

Chang Yebin captures fleeting moments from rapidly circulating media images through screenshots and translates them into painting, focusing on unexpected bodily movements that escape control—such as a stumble, a fall, or a tightly shut eye. By suspending these scenes, she allows incomplete gestures and unpredictable flows to remain within the frame, drawing out the latent potential for movement embedded in moments where time appears to stop.









홍정욱은 회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화면과 공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며, 평면과 설치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전개한다. 캔버스와 회화 재료를 변형해 공간 속 하나의 요소로 배치하고, 은은한 색의 빛과 섬세한 그림자를 통해 입체적 회화와 회화적 입체 사이의 형식적 실험을 지속한다.

Hong Jung Ouk reconfigures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and space through a painterly approach, developing works that traverse the boundary between painting and installation. By transforming canvases and traditional painting materials into elements within the exhibition space, he pursues formal experiments between sculptural painting and painterly sculpture, articulated through subtle chromatic light and delicate shadows.



